

텍스트 장르에 따른 양보관계 접속표현의 한중 번역 연구 — 접속어미 ‘아도’를 중심으로 — *

이 선
(산동대)

1. 서론

접속표현은 텍스트의 내적 논리 관계를 나타내는 효과적인 문법적 수단이다. 하지만 접속표현의 사용 양상은 언어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한자문화권에 속하지만 양국 언어는 유형론적으로 다르므로 접속표현의 사용 빈도는 물론이며 선호하는 종류도 매우 다르다. 한국어는 교착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논리 관계를 나타내는 데 반드시 조사나 접속표현이 필요하지만, 중국어는 전형적인 고립어로서 둘 이상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때 접속표현의 사용은 강제성이 상당히 약한 편이다. 여숙상(呂叔湘 1999: 29)에 따르면, 중국어는 다른 언어보다 비명시적 논리 연결 특징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데 접속표현을 사용하면 오히려 어색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언어 유형의 차이로 인한 한중 접속표현의 번역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진아(2000), 김아영(2004), 장현주(2006), 김혜림(2017), 이선(2018) 등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두 언어 간 차이점을 검증하였으며 실제 접속표현을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김진아(2000)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복문을 대조하여 한중 번역 시 중국어 접속표현의 오용, 혼용, 남용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아영(2004)과 장현주(2006)는 중국어 비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을 분석하고 한국어로 번역할 때 취할 수 있는 구조들에 대해 연구했다. 김혜림(2017)은 말뭉치를 활용하여 중국어 번역 텍스트에서 나타난 접속표현의 사용 빈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면서 원문과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선(2018)은 말뭉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한국어 접속어미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번역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기존 연구를 보면, 모두 한·중 접속표현이 나타난 의미관계에 초점을 두고 번역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접속표현이 쓰인 텍스트의 종류별 특징, 즉 장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접속표현을 선호하는 경향과 전체적으로 접속표현을 사용하는 빈도는 의미론적인 이유 외에, 장르를 비롯한 화용론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Baker 1992: 196). 스미시와 프롤리(Smith and Frawley 2009)는 장르별 영어 접속사 사용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일부 장르가 대체로 다른 장르보다 '더 표층결속적'이며, 각 장르는 저마다 특정 종류의 접속사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접속표현의 여러 유형 중에 양보관계 접속표현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 존재하는 범언어적 범주로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면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2) 이에 본고는 한국어 양보관계 접속표현 중 가장 대표적인 접속

* 이 논문은 산동대학교의 일반학술연구비(基本科研業務費) 및 교육혁신연구비(教育教學改革研究費)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한국어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접속표현으로 대부분 접속어미가 사용되지만, 이은경(1998)에 따르면 ‘-르 뿐만 아니라’, ‘-로에도 불구하고’ 등 접속어미와 유사한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 ‘의사 접속어미’도 존재한다.

2) 이은경(1999: 18)에 따르면, 구어체 텍스트에 사용되는 한국어 양보관계 접속어미의 사용 빈도는 나열, 조건, 배경, 선행, 원인, 동시 등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샹운(姚双云 2008:134)는 중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인민일보」 텍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보관계 접속표현이 병렬(并列), 점층(漸進), 인과(因果) 접속 다음으로

어미 ‘-아도’를 중심으로 장르별 말뭉치를 구축해 관련 중국어 번역 양상이 텍스트 종류에 따라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신문사설이나 연설문 등 실용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데 비해, 본고는 문학 텍스트에 착안하여 소설과 전기 두 가지 장르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소설과 전기는 모두 문학 분류에 속하지만 언어 표현의 논리성이나 특정 언어 표현의 사용 빈도 등 문체적 특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번역학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 텍스트 유형론적 특징을 보인다. 본고는 이와 같은 텍스트의 장르적 특징에 착안하여 양보관계 접속어미 ‘-아도’의 번역이 두 가지 장르에서 각각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고찰하고, 아울러 장르별 번역 전략도 함께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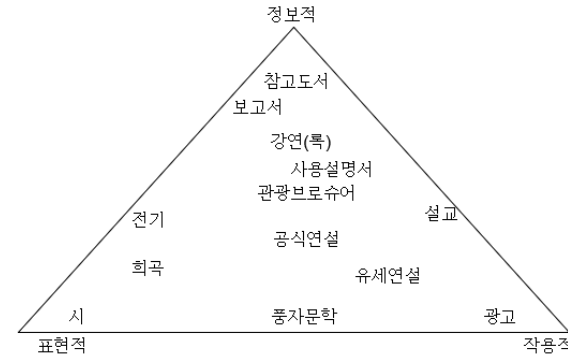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2.1 장르별 번역을 위한 고려 요소

텍스트의 장르별 번역 방법은 해당 텍스트가 속한 유형 및 그 텍스트가 지닌 문체와 긴밀한 관련을 지닌다. 번역학에서 텍스트 유형 이론은 문학 번역, 전문 번역 등을 비롯하여 특정 담화 유형 또는 장르의 번역 특징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1813)에서 텍스트를 ‘실용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로 나눈 것을 필두로 하여 20세기 중반부터 텍스트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텍스트 유형과 관련된 번역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라이스(Reiss 1977)를 들 수 있다. 그의 연구는 등가의 개념에 바탕을 두나 기존 다른 연구와는 달리, 의사소통이 달성되고 등가가 구현되는 층위로서 단어 또는 문장이 아닌, 텍스트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빌러(Bühler 1965)의 모델에 기대어 언어 기능을 정보적 기능, 표현적 기능, 그리고 소구적 기능으로 나눈 후, 세 가지 언어 기능을 대응되는 언어 ‘차원’과 그 언어 기능이 사용되는 텍스트 타입 또는 의사소통 상황에 연결하였다. 라이스(1976: 20)에 따르면, 텍스트 유형은 내용 중심

(content-focused) 또는 정보적(informative) 텍스트, 형식 중심(form-focused) 또는 표현적(expressive) 텍스트, 소구 중심(appellative-focused) 또는 작용적(operative) 텍스트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른 텍스트의 구체적 장르의 예는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 Reiss의 텍스트 타입 및 텍스트 유형(Chesterman 1989: 105)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과 같은 참고도서는 대표적인 정보적 텍스트 유형이고, 시는 발신자에 초점을 맞춘 표현적 텍스트 유형이며, 광고는 수신자에 초점을 맞춘 작용적 텍스트 유형이다. 한편, 전기는 한 인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문학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표현적 기능도 구사하기 때문에, 정보적 텍스트 유형과 표현적 텍스트 유형 사이에 위치한다.

텍스트 유형마다 언어 기능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번역방법 역시 달라진다. 정보적 텍스트 유형의 경우, 언어 기능이 객관적 사실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출발어 텍스트의 지시적 또는 개념적 내용은 보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 언어가 논리적이어야 하고 ‘화려한 문체’보다 ‘평이한 산문체’가 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명시화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비해, 표현적 텍스트 유형의 경우, 출발어의 텍스트 기능이 미적 효과 창출이기에, 번역 시 출발어 텍스트의 미학적 예술적 형식을 전달해야 하며, 저자와의 ‘동일시’ 전략을 바탕으로 번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용적 텍스트 유형의 경우, 출발어 텍스트와 동일한 설득 효과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적응적’(adaptive)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설은 표현적 텍스트 유형에 속하므로 번역 시 텍스트의 미학적 형식은 가능한 한 전달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전기는 정보적 텍스트 유형과 표현적 텍스트 유형 사이에 위치하는 혼성된 텍스트 유형으로 형식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목적 역시 달성해야 한다.

라이스의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텍스트의 번역방법을 선택하는 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었다. 즉 번역 작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번역물의 텍스트 유형 파악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한편, 각각의 텍스트 유형 밑에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언어 사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 시 해당 장르가 지닌 문체적 특징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문체란 “텍스트에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특징”(Bussmann 2006: 1134), 혹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다양한 대안 가운데 선택한 언어적 패턴”(Leech and Short 1981: 39)을 가리킨다³⁾. 케이드(Kade 1968: 79)는 번역 전환을 이루기 위해 문체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간주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번역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에서 ‘의무적 번역 전환(obligatory translation shift)’과 ‘선택적 번역 전환(optional translation shift)’으로 구분하면서 ‘의무적 번역 전환’이란 번역대상인 두 언어의 언어체계상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지는 전환을 가리키지만, ‘선택적 번역 전환’은 번역사가 언어적 차이 중개 필요성 이외에 문체적·이념적·문화적 이유로 선택하는 전환이라고 주장했다(Kade 1968, 정호정 2016: 168 재인용). 비슷한 맥락에서 베이커(Baker 1992: 188)는 번역 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텍스트 요소의 연결 방식을 목표언어의 텍스트 규범에 맞춰 바꿔야 한다면서 각 장르의 텍스트 규범이 특정 기제를 선택하도록 하며, 문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심지어 다른 장르에서는 텍스트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여타 기제들을 배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의 관점에 따르면, 소설과 전기는 모두 문학 텍스트에 속하지만 장르가

다르므로 문체적 특징 역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가령 소설 텍스트에서 구어체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전기 텍스트는 문어체적 특징을 더욱 강하게 띤다. 따라서 소설 텍스트는 단어와 문장의 길이가 짧고 구조 역시 간단한 데 비해, 전기 텍스트는 단어와 문장의 길이가 길고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다. 그리고 소설 텍스트는 저자의 주관성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며 사용된 언어 형태와 언어 스타일도 다양하지만, 전기 텍스트는 과거에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므로 보다 논리적이고 명료한 언어표현이 요구된다. 그 외에, 중국어의 경우, 문체의 차이가 접속표현의 출현빈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건신과 장문현(崔建新, 張文賢 2002: 399)은 텍스트의 문어체적 특징이 강할수록 접속표현이 더욱 자주 사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 텍스트는 소설 텍스트보다 접속표현의 출현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텍스트 유형과 문체 모두가 장르별 번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보관계 접속어미 ‘-아도’를 중심으로 소설과 전기 텍스트에서 나타난 번역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접속어미 ‘-아도’의 통사·의미적 특징

양보란 선행절의 사태로 인하여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사태가 후행절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후행절에 이어짐을 의미한다(이익섭, 채완 1999: 400-401). 접속어미 ‘-아도’는 양보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어미만큼 쓰임 또한 매우 다양하다. ‘-아도’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접속어미 ‘-아도’의 통사적 특징은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선어말어미 제약 그리고 문장 유형 제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과 후행절은 주어 일치 제약이나 주어 인칭 제약이 없고, 서술어의 품사적 제약 또한 없다. 그리고 ‘-아도’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등 모든 문장 유형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도’는 시상 선어말어미와 함께 쓰일 때 제약을 받는다.

3)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문체를 개별 언어화자의 언어 표현 양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부스만(Bussmann 2006: 1134)의 정의처럼 넓은 의미에서 문체 연구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분석을 포괄하므로 문학 및 비문학 텍스트에 경계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최희경 2016: 232).

- (1) 선생님이어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 (2) 방이 깨끗해도 청소 한 번 더 하자.
- (3) (아팠어도, *아프겠어도) 끝까지 완성했을 것이다.

위의 예문 (1)은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과 후행절은 주어가 일치하고, 서술어 위치에 각각 지정사 ‘이다’, 동사 ‘못하다’가 오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예문(2)는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과 후행절은 주어가 서로 다르고, 서술어 위치에 각각 형용사 ‘깨끗하다’, 동사 ‘하다’가 오는 경우이다. 한편 용례(3)의 경우, ‘-아도’가 과거시제 어미 ‘-았-’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겠-’과 함께 결합할 수 없다.

통사적 쓰임과 마찬가지로, ‘-아도’의 의미적 특징 또한 매우 다양하다. 우선,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에는 이미 이루어졌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조건, 그리고 반복적·습관적 조건이 모두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무슨’ 등의 관형사와 결합하여 모든 상황을 가정하는 조건이 올 수도 있다.

- (4) 허리가 아파도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 (5) 아무리 아기가 밋게 행동해도 내 지식이면 다 예쁘다.
- (6) 그녀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

위의 예문(4)에서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실 조건이고, 예문 (5)에서 선행절 사건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조건이다. 이에 비해, 예문(6)의 선행절은 관형사 ‘어떤’이 함께 쓰여 모든 상황을 가정하는 조건을 나타낸 경우이다.

둘째,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조건이나 사실성 여부가 불확실한 비사실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

- (7) 내일 바람은 불어도 그렇게 춥지 않을 겁니다.
- (8) 그 사람은 서른이 넘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란다.

예시(7)에서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 사건은 내일의 날씨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 경우이고, 예시(8)은 선행절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조

건을 나타낸 경우이다.

셋째, ‘-아도’는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도 사용되며, 일반적 사실과 반대되는 반사실 조건도 나타낼 수 있다.

- (9) 해가 서쪽에서 떠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10) 그날 선생님이 갔어도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시(9)에서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 사건은 일반적 사실과 반대되는 반사실 조건을 나타내는데 비해, 예시(10)에서 선행절 사건은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아도’는 ‘되다, 좋다, 괜찮다, 상관없다’ 등 어휘와 함께 쓰여 허락이나 허용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11) 오전에 시간이 없으면 오후에 와도 됩니다.
- (12) 정말 좋아하고 마음만 맞다면 키가 작아도 괜찮다.

위의 예시(11)과 (12)를 보면, ‘-아도’가 각각 ‘되다’, ‘괜찮다’와 함께 쓰여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아도’는 보조사 ‘만’과 결합하여 ‘N-만 V-아도’와 같은 관용어를 이루어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내기도 한다(임지룡 1982: 272).

- (13) 어제 일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예시(13)에서 ‘-아도’는 명사 ‘생각’, 보조사 ‘만’과 함께 쓰여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후행절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접속어미 ‘-아도’의 장르별 번역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적합한 말뭉치를 구축

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소설 텍스트로 신경숙의 『외딴방』(이하 『외딴』이라 함) 및 그 중역본 『單人房』(薛舟, 徐麗紅 역, 이하 『單人』이라 함)을, 전기 텍스트로 박근혜의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이하 『절망』이라 함) 및 그 중역본 『絕望鍛煉了我:朴槿惠自傳』(藍青榮 등 역, 이하 『絕望』이라 함)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위와 같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선정된 두 권의 중국어 번역서는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번역의 충실성과 가독성을 겸비하였기 때문이다⁴⁾. 이처럼 번역 품질이 검증된 작품은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한·중 병렬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접속어미 ‘-아도’와 관련된 한국어 텍스트를 수집한 후,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말뭉치를 수집하였다. 다시 말하면, 먼저 『외딴』과 『절망』에서 접속어미 ‘-아도’가 사용된 문장을 일차적으로 각각 추출한 다음, 중국어 번역 텍스트에서 대응된 문장을 찾아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구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설 텍스트는 164개, 전기 텍스트는 68개 총 232개의 문장을 추출하였다.

3.2 분석 방법

소설과 전기 간의 번역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텍스트에서 사용된 번역 방법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고는 우선 번역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분석 방법, 즉 직역과 의역을 기준으로 말뭉치 전체를 일차적으로 나눈 후, 각 방법별에 따른 자세한 번역 전략을 살펴보았다. 두 가지 번역 방법으로 구분하는 기준 및 이에 따른 세부 분류는 아래와 같다.

먼저, 접속어미 ‘-아도’의 직역이란 ‘-아도’가 사용된 문장을 그 의미 그대로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양보관계 구문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중국어의 유형론적 특징에 따르면, 접속어미 ‘-아도’의 직역 양상은 중국어 양보관계 접속표현을 사용하는 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번역한 경우와 중국어 양보관계

4) 『외딴』은 2006년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중국어로 번역된 바 있으며, 제8회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절망』은 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최초 자서전으로 중국어판으로 번역된 후, 중국 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될 만큼 중국 독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접속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비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⁵⁾으로 번역한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관련 예시는 다음과 같다.

(14) ST: “...우리에게 망각은 있을 수 있어도 남이 지키고자 하는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망)

TT: “……即使我們可以忘記，我們也不能扭曲別人想要遵守的善意約定。”

(15) ST: 그녀가 수업이 시작된 뒤에 와도 그 자리는 비어 있다. (외딴)

TT: 開始上課了，她的座位仍然空着。

위의 용례(14), (15)는 모두 접속어미 ‘-아도’를 직역한 용례들이다. 그 중 용례(14)는 중국어의 대표적 양보관계 접속표현 ‘即使……也’를 활용하여 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번역한 경우이며, 용례(15)는 비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번역한 경우에 속한다.

한편, 양보관계 접속어미 ‘-아도’의 의역이란 텍스트적 등가를 이루기 위해 ‘-아도’가 사용된 문장을 중국어 양보관계 구문으로 직역하는 대신 다른 형식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방법은 도착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을 찾을 수 없거나 대응되는 표현만으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많이 쓰인다. 전체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접속어미 ‘-아도’의 의역 양상은 다른 의미관계 구문을 활용한 경우, 문장성분을 활용한 경우, 재구조화를 활용한 경우, 그리고 생략을 활용한 경우 등 총 4가지로 확인되었다. 관련 예시는 다음과 같다.

(16) ST: 딸들에게 세상의 짐을 좀 나누어주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리라는 걸 아버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외딴』)

TT: 如果女儿能稍微分担這社會的負擔，世界將會變得更美好，這一点相信父親們心里都很清楚。

(17) ST: 택시에서 내릴 때만 해도 어서 방안으로 들어가 놓고만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퍽 걸려 넘어졌다. (『외딴』)

5) 기존 일부 논의에서는 ‘비명시적 논리 연결’이라는 용어 대신, 접속표현의 ‘영형태’(null morpheme), 혹은 ‘무표’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심푸이(邢福義 2001), 송엽휘(2011)을 참조할 수 있다.

TT: 剛下出租車的時候，我還想快点儿回家躺下休息，可是有什么東西突然被我的心絆了一下，摔倒了。

(18) ST: 적어도 문학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기억들은 성찰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외판』)

TT: 至少，對於文學而言，現在之前的全部記憶不都成爲省察的對象嗎。

(19) ST: “... (중략)... 중국 사람들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아요... (중략)...” (『외판』)

T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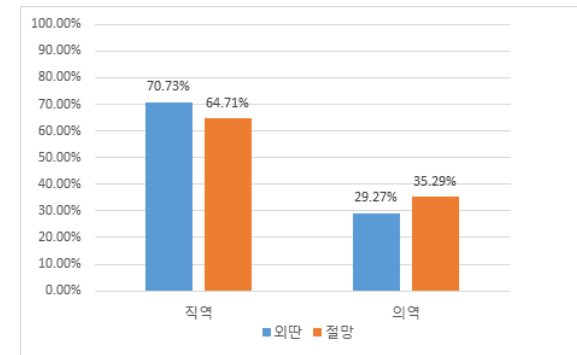
위의 용례(16)을 보면,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과 후행절은 번역문에서 각각 독립된 절로 번역되었으나, 두 절 간의 의미관계는 양보관계가 아닌 조건관계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다른 의미관계 구문을 활용하여 번역하는 전략은 주로 원문의 의미관계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용례(17)의 원문에서 접속어미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은 최소의 시간적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중국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성분 ‘……的時候’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다. 용례(18)에서 접속어미 ‘-아도’는 선행절의 형용사 ‘적다’와 함께 쓰여 극단적인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데, 번역문에서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 보아 부사 ‘至少’를 활용하여 의역하였다. 이처럼 ‘-아도’가 관용적 의미를 지닐 때, 선행·후행절의 내용을 중국어의 언어특징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방법은 의미적 등가를 이루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용례(19)는 의역법 중 비교적 특수한 전략, 즉 원문 문장 전체를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생략 전략은 보통 두 언어의 문장 구조 차이 혹은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데, 원문을 보면 ‘-아도’가 이끄는 문장은 중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번역문에서 생략된 채 의역되었다.

이상의 분류 기준에 따라 관련 번역 전략의 장르별 사용 양상을 대조 분석함으로써 각 텍스트별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를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장르별 말뭉치를 비교한 결과, 소설 텍스트에서 ‘-아도’를 직역한 용례는 116회로 나타났고 전체 비중의 70.73%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아도’를 의역한 용례는 48회로 나타났고, 전체 비중의 29.27%만 차지하였다. 한편, 전기 텍스트에서 직역과 관련된 용례는 44회로 확인되었고, 전체 비중의 64.71%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의역과 관련된 용례는 24회로 확인되었고, 전체 비중의 35.29%를 차지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아도’의 장르별 번역 방법 비율



위의 그림 2를 보면, 접속어미 ‘-아도’를 번역하는 데 있어 소설 텍스트와 전기 텍스트에서 직역과 의역 모두 확인되었으며, 그 중 특히 직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레비(Levý 1967)가 제시한 미니맥스 전략(minimax strategy)에 따르면, 번역자는 가능한 해결책 중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장하는 것을 선택한다. 위와 같이 장르를 불문하고 직역의 비율이 모두 60% 이상을 넘었다는 결과는 레비(1967)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두 가지 장르에서 직역과 의역의 비율을 각각 비교해 보면, 소설과 전기의 6.02%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소설 장르는 직역 비율이 비교적 높는데 비해, 전기 장르는 의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라이스(1977)의 기능주의 번역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세히 말하

면, 소설은 표현적 텍스트 유형에 속하므로 형식을 더욱 중요시한다. 이에 비해, 전기는 정보적 텍스트 유형과 표현적 텍스트 유형 사이에 위치하는 혼성된 텍스트 유형이기 때문에 출발어의 미학적 형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보 전달 목적 역시 달성해야 하므로 가독성을 위한 의역 용례가 비교적 많이 확인된 것이다.

4.1 장르별 직역법 분석

앞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제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는 직역을 1차적인 번역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다. 접속어미 ‘-아도’의 직역법은 다시 접속표현을 사용하는 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번역한 경우와 접속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비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번역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직역과 관련된 용례는 총 160회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 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직역한 경우는 소설 텍스트에서 102회, 전기 텍스트에서 44회 총 146회로 확인되었으며, 비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직역한 경우는 14회로 모두 소설 텍스트에서 확인되었다. 관련 양상을 장르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아도’의 장르별 직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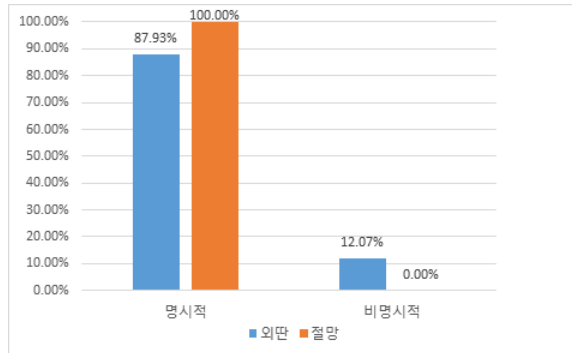


그림 3을 보면 한-중 양국 언어는 문장 구성 방식 면에서 유형론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번역문에서 두 가지 장르 모두 한국어와 같이 접

속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든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직역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레비(1967)의 미니맥스전략에 부합하는 선택이며, 중국어의 문장 구성 규칙에 부합하는 방법이기도 한다. 후자에 대해 곽부강(郭富强 2007)은 중국어에서 비명시적 논리 연결 방식이 허락되는 데 총 네 가지 규칙이 적용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른 비명시적 논리 연결 방식⁶⁾, 둘째는 사건의 인과 순서에 따른 비명시적 논리 연결 방식⁷⁾, 셋째는 공간의 크기에 따른 비명시적 논리 연결 방식⁸⁾,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중요성에 따른 비명시적 논리 연결 방식⁹⁾이다. 하지만 ‘-아도’의 경우, 선행절의 사건으로 인하여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사태가 후행절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후행절에 이어지기 때문에 선·후행절의 의미관계가 위의 4가지 규칙에 속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아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소설과 전기는 대부분의 경우 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직역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관련 예시는 아래와 같다.

- (20) ST: 누가 내 등 뒤에 비수를 꽂는다 해도 그때만큼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절망』)
 TT: 那一刻, 即使有人在背后刺我一刀, 恐怕我也不会觉得痛了.
- (21) ST: “우리끼리 힘을 강강 모아도 될까 말까 한테 말야.” (외판)』
 TT: “就算我們齊心協力, 也還不知道能不能成功呢。”
- (22) ST: 신문과 텔레비전, 어디를 봐도 책임을 지겠다는 정치인은 없었다. (『절망』)
 TT: 不管是看報紙、電視, 還是环顧周遭, 都看不到愿意出來負責的政府官員。

- 6) 중국어에서 ‘時序先后律’라고 부르는데, 즉 시간적으로 우선 일어난 것을 먼저 말하고, 늦게 일어난 것을 그 뒤에 말한다는 규칙이다.
 7) 중국어에서 ‘事理因果律’라고 부르는데, 즉 논리적으로 먼저인 원인이나 조건을 우선 말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뒤에 말한다는 규칙이다.
 8) 중국어로 ‘空間大小律’라고 부르는데, 즉 시간 혹은 공간적으로 먼 것부터 가까운 것, 큰 것부터 작은 것, 그리고 넓은 것부터 좁은 것에 의해 문장을 만든다는 규칙이다.
 9) 중국어로 ‘心理重輕律’라고 부르는데, 즉 중요한 일을 먼저 언급하고, 먼저 생각나는 일을 먼저 말한다는 규칙이다.

(23) ST: 이것 봐. 다 아물었어도 오래 걸으면 힘줄이 당기는 것 같이 아퍼. (『외판』)

TT: 你看, 雖然已經愈合了, 但是如果走時間長了, 還是很疼, 就像筋被拉起來了似的。

위의 용례(20), (21)은 모두 접속어미 ‘-아도’를 중국어의 가정성(假定性) 양보관계 접속표현으로 번역한 용례들이다. 자세히 말하면, 용례(20)의 번역문에서 중국어의 대표적 접속표현 ‘即使……也’가 사용되었고, 용례(21)은 소설 원문이 대화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어체에서 자주 쓰이는 접속표현 ‘就算……也’가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용례(22)의 경우,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에 ‘어디’가 쓰여 모든 상황을 가정하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번역문에서 무조건(無條件) 양보관계 접속표현 ‘不管……’都를 활용하여 원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용례(23)을 보면, 접속어미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 사건은 이미 발생한 일이므로 번역문에서는 용인성(容認性) 양보관계 접속표현 ‘雖然……但是’를 활용하여 사실에 대한 양보 의미를 나타냈다.

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직역하는 방법에 비해, 접속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비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번역한 경우도 일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용례는 소설 텍스트에서 12.07%의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전기 텍스트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앞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어에서 접속표현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출현 빈도가 다르다. 특히 텍스트의 문어체적 특징이 강할수록 접속표현의 출현빈도가 높다. 전기 장르에서 사용되는 언어 표현이 보다 논리적이고 문어체적 특징을 띠는데 비해, 소설 장르는 문장의 길이가 짧고 구조 역시 간단하며 언어 표현이 상대적으로 구어체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소설의 문체적 특징은 비명시적 논리연결 구문의 활용을 가능하게 만든다. 관련 예시는 아래와 같다.

(24) ST: 정오가 지나도 창은 나타나지 않는다. (『외판』)

TT: 正午已過, 昌還沒有來。

(25) ST: 문을 닫고 내가 방에 들어가도 그녀는 우두커니 앉아 있다. (『외판』)

TT: 我關閉房門走進去, 她仍然呆呆地坐着。

위의 예문(24), (25)에서 접속어미 ‘-아도’가 이끄는 선·후행절 사건은 시간적 선후 관계에 따라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와 같이 소설 번역문에서 용인성 양보관계로 처리해야 할 경우 비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직역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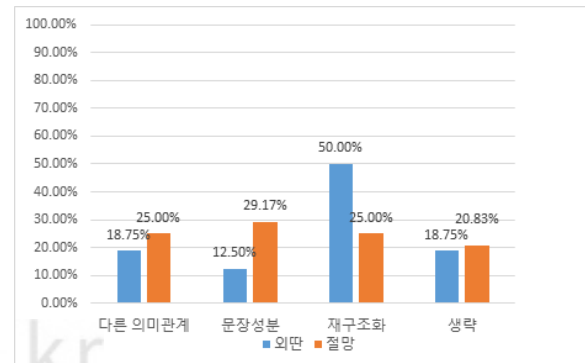
4.2 장르별 의역법 분석

접속어미 ‘-아도’가 이끄는 문장을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양보관계 구문으로 직역하는 방법 외에, 의역을 통해 원문과 텍스트적 등가를 이룬 용례는 총 72 회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역은 다시 다른 의미관계 구문을 활용한 경우, 문장성분을 활용한 경우, 재구조화를 활용한 경우, 그리고 생략을 활용한 경우 등 총 4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두 가지 장르에서 확인된 관련 용례의 출현빈도 및 해당 텍스트 내 차지 비중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아도’의 장르별 의역법 출현빈도

의역 유형 \ 텍스트	외판』	절망』
다른 의미관계 구문 활용	9	6
문장성분 활용	6	7
재구조화 활용	24	6
생략 활용	9	5
합계	48	24

그림 4 ‘-아도’의 장르별 의역법 비율



위의 <표 1>과 그림 4를 통해 4가지 의역 전략은 소설 텍스트와 전기 텍스트에서 모두 확인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출현빈도 또는 차지한 비중 측면에서 텍스트 장르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소설의 경우, 재구조화를 활용한 의역 용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전체 용례에서 차지한 비율은 50%나 되었다. 이에 비해, 생략을 활용한 의역 용례와 다른 의미관계 구문을 활용한 의역 용례는 전체 용례의 18.75%로 그 출현빈도가 같았다. 마지막으로 문장성분을 활용한 의역 용례는 12.5%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전기의 경우, 네 가지 의역 전략의 출현빈도 및 차지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중 문장성분을 활용한 의역 용례는 29.17%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다른 의미관계 구문을 활용한 의역 용례와 재구조화를 활용한 의역 용례는 전체 용례에서 모두 2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생략을 활용한 용례는 20.83%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4.2.1 다른 의미관계 구문을 활용하는 경우

접속어미 ‘-아도’가 이끄는 문장을 다른 의미관계 구문으로 의역한 경우는 총 15회로 확인되었다. 관련 용례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소설 텍스트는 차지 비율 면에서 전기 텍스트보다 6.25% 낮게 나타났지만 관련 용례들의 의역 양상은 전기 텍스트보다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른 의미관계 구문을 활용하는 의역법은 다시 조건(條件)관계¹⁰⁾ 구문으로 의역하는 방법과 연관(連貫)관계¹¹⁾ 구문으로 의역하는 방법 총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건관계 구문으로 번역하는 전략은 소설 텍스트와 전기 텍스트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양보관계 접속문은 조건관계 접속문과 마찬가지로 선행절이 조건을 나타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접속어미 ‘-아도’가 쓰인 문장을 조건관계 구문으로 의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10) 본고에서 말하는 ‘조건’은 ‘가정’을 포함한 넓은 범주를 가리킨다. 중국어 학계에서 조건관계를 분류하는 데 가정관계를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두 개념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욱 많을뿐더러 실제 언어생활에서 구분하지 않고 쓰이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관계를 조건관계의 일부로 포함하기로 한다.

11) 연관관계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이나 상황을 시·공간 혹은 사건의 논리적 순서로 설명하는 관계를 일컫는다.

(26) ST: 세상이 무서워졌다. 입만 빙긔도 꺼어간다. (『외딴』)

TT: 現在這世道好恐怖。稍稍開口，就有可能被人抓走。

(27) ST: 잠시만 서 있어도 발이 꽁꽁 얼고 내복을 꺼입고 스웨터를 꺼입어도 살 속으로 한기가 파고 들었다. (『절망』)

TT: 只要在外面站一會兒，雙腳就會凍僵；即使穿了厚厚的秋衣也套了毛衣，身體還是感到陣陣寒意。

(28) ST: “……그러니 혹시 너에게 연락이 와도 내 말 꼭 전해……” (『외딴』)

TT: “……万一他和你聯系，你一定要把我的話轉告他，……”

용례(26)과 (27)을 보면, 원문에서 접속어미 ‘-아도’는 조사 ‘만’과 함께 쓰여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번역문에서 모두 필요조건(必要條件)¹²⁾을 나타내는 접속표현으로 나타났다. 그 중 용례(26)의 번역문은 후행절에서 부사 ‘就’를 활용하였고, 용례(27)의 번역문은 부사 ‘就’ 외에, 선행절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연사 ‘只要’도 함께 사용했다. 이에 비해, 용례(28)은 가정조건(假定條件)관계 접속표현 ‘万一’를 활용하여 의역한 경우이다. 원문에서 접속어미 ‘-아도’는 부사 ‘혹시’와 함께 쓰여 가능성이 낮은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가능성이 극히 작은 일을 가정할 때 쓰이는 ‘万一’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다.

조건관계에 비해, 연관관계 구문을 활용하여 번역하는 전략은 소설 텍스트에서만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 장르는 일종의 표현적 텍스트로 번역 시 언어 표현의 논리성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선행절의 시간적 선후 순서만 나타내는 연관관계 구문으로 번역한 것은 소설의 이와 같은 문체적 특징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예시는 다음과 같다.

(29) ST: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단풍진 낙엽은 후르르 떨어져 내렸다. (『외딴』)

TT: 微風吹過，紅葉就會隨風飛舞。

(30) ST: 그의 노트는 어느 장을 펼쳐봐도 잔글씨들이 안개처럼 자욱했다. (『외딴』)

TT: 隨便翻開他的筆記，到處都是蠅頭小字，猶如雲霧弥漫。

12) 필요조건(必要條件)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일컫는다.

용례(29), (30)을 보면, 원문에서 ‘-아도’가 이끄는 선·후행절이 양보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번역문에서는 모두 시간의 선후 순서만 드러내는 연관관계 접속문으로 의역하였다. 그 중 용례(29)는 접속표현 ‘就’를 활용했는데 비해, 용례(30)은 접속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비명시적 논리연결 구문으로 의역하였다.

4.2.2 문장성분을 활용하는 경우

접속어미 ‘-아도’를 직역하는 어색함을 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 혹은 후행절을 번역문에서 주어, 부사어 등 문장성분으로 의역하는 것이다. 문장성분을 활용하여 의역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전기 텍스트에서 관련 용례의 차지 비율이 소설 텍스트보다 12.5%나 현저히 높았다. 구체적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번역문에서 원문과 텍스트적 등가를 이루기 위해 활용된 문장성분은 다시 주어, 부사어, 관형어, 삽입어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중 전기 텍스트는 관련 용례의 출현빈도가 높은만큼 번역 양상 역시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우선, 접속어미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 의미를 번역문에서 부사어 성분을 활용하여 번역하는 방법은 두 가지 텍스트에서 모두 나타났다. 관련 예시는 아래와 같다.

(31) ST: 몇날 며칠이 흘러도 편안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절망₁)

TT: 那天之后好几天以來, 晚上總是輾轉難眠。

(32) ST: 나는 그때만 해도 엄마가 말한 너는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외판』)

TT: 當時, 媽媽說你和我變成不一樣的人了, 我認爲是理所當然。

위의 용례(31), (32)는 모두 시간 부사어 성분¹³⁾을 활용하여 번역한 경우들이다. 용례(31)의 원문을 보면, 접속어미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은 시간적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데, 번역문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之后’, ‘以來’를

13) 중국어의 부사어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동작 혹은 동작주에 대해 설명하는 묘사(描寫)성 부사어이고, 하나는 시간, 장소 등을 나타내는 비묘사(非描寫)성 부사어이다.

활용하여 원문과의 의미적 등가를 이루었다. 용례(32)의 원문에서 ‘-아도’는 보조사 ‘만’과 결합하여 ‘-만 해도’의 형식을 이루게 되면서 최소의 시간적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용어구의 의미는 중국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성분 ‘……的時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부사어 성분과 마찬가지로, 주어 성분을 활용하여 번역한 용례도 두 가지 텍스트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관련 예시는 아래와 같다.

(33) ST: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한 뒤 이곳에서 접견을 가진 외국 국빈만 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절망』)

TT: 執行第一夫人任務的時候, 在青瓦台里接見的國外貴賓就相當多。

(34) ST: 다섯 명 이상만 모여서 얘기해도 죄가 된다고 헤겔을 읽는 미서는 속삭인다. (『외판』)

TT: 閱讀黑格爾著作的美舒悄悄地對我說, 五人以上聚會說話, 就是犯罪。

용례(33)을 보면, 원문의 선행절은 명사구와 ‘-만 해도’가 결합된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선행절의 명사구는 다시 후행절의 주어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경우, 번역문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을 각각 문장의 주어 성분, 술어 성분으로 처리하면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중국어 문장을 구현할 수 있다. 용례(34)도 마찬가지로,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 사건은 다시 후행절에서 주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번역문에서 선행절 내용을 주어 성분으로 처리하면서 원문과의 의미적 등가를 실현하였다.

위의 제시된 두 가지 번역 전략에 비해, 삽입어 성분¹⁴⁾과 관형어 성분을 활용하여 번역하는 방법은 전기 텍스트에서만 확인되었다. 관련 용례를 보면 이와 같은 번역 전략이 전기 장르의 문체적 특징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35) ST: 과 동기들도 서로의 꼴을 바라보며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지금 돌이켜봐도 참 유쾌한 하루였다. (절망₁)

TT: 系里同學看到彼此的樣子也都笑了出來。現在回想起來, 那天還真是愉快。

14) 중국어에서 삽입어란 문장 앞에 쓰여 문장 속의 각 성분과 구조상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 단지 보충설명의 역할을 하는 성분을 가리킨다.

- (36) ST: 지금 돌이켜봐도 어머니는 정말 유능한 교육자였다. (절망₁)
 TT: 現在回想起來, 母親真是個了不起的老師,
 (37) ST: 근영이의 눈에서도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걸으려는 야무지고 강단 있어 보여도 마음이 여리고 섬세한 아이였다. (절망)
 TT: 權令的眼里也不停地流下眼淚, 外表看起來堅強又活潑的她, 其實是一個心思非常細膩的孩子。

용례(35), (36)의 원문을 보면, 접속어미 ‘-아도’는 모두 동사 ‘돌이키다’와 함께 쓰여 후행절의 발화 내용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는 인물의 일생을 소재로 하여 지은 글이기 때문에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하는 의미로 ‘돌이키다’와 같은 어휘가 비교적 많이 쓰인다. 이와 같은 경우, 중국어의 문장 특징에 부합하기 위해 선행절 내용을 삽입어 성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용례(37)의 경우, 원문은 인물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어떤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 내용은 전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문장구조를 살펴보면, 접속어미 ‘-아도’가 이끄는 선·후행절은 다시 명사 ‘아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 된다. 그리고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장의 초점이 ‘-아도’가 이끄는 후행절 내용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표현방식에 부합하기 위해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 내용은 번역문에서 관형어 성분으로 처리되었고, 후행절 내용은 술어 성분으로 처리되었다.

4.2.3 재구조화를 활용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의역법 외에, 한국어 원문의 표현을 중국어 단어나 관용 표현 등으로 번역하여 중국어 문장 구성 규칙에 부합하도록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 역시 유효한 수단이 된다. 전체 텍스트에서 접속어미 ‘-아도’가 쓰인 문장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텍스트적 등가를 이룬 경우는 소설 텍스트에서 24회, 전기 텍스트에서 6회 총 30회로 확인되었다. 그림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전략은 소설 텍스트에서 차지한 비율이 50%나 되는데 비해, 전기 텍스트에서는 25%만 차지하였으므로 장르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 이유에 대해 관련 용례를 분석한 결과, 재구조화를 활용하는 전략은 대부분 ‘-아도’의 관용적 쓰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데, 두 가지 장르 중 소설 텍스트

는 구어체적 특징이 비교적 강하므로 ‘-아도’와 관련된 관용 표현이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며, 번역 전략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다. 관련 예시는 아래와 같다.

- (38) ST: “정말로 나, 공부해도 돼?” (외딴₁)
 TT: “我眞的, 可以學習嗎?”
 (39) ST: 그녀는 특히 한국요리에 관심이 많았다. 간단한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어도 좋으니 언제나 주방을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절망』)
 TT: 她對韓國料理特別感興趣, 考慮到我會想家, 甚至允許我自由使用廚房, 偶爾可以自己做韓國菜來吃。
 (40) ST: 준비반으로 옮겨가지 않아도 좋으니 이계장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아무상관도 않고 가만히만 있어주면 그것으로 외사촌과 나는 됐다. (『외딴』)
 TT: 我們不用調到準備班, 只要李系長像現在這樣別來騷擾, 我們也就心滿意足了。
 (41) ST: 하나의 나사가 박힐 때마다 에어드라이버에서 뿜어져 나오던 쇠아, 하는 바람 소리에 매번 놀라느라 그러잖아도 느린 일의 속도는 더욱 더더진다. (『외딴』)
 TT: 每當釘進一個螺絲, 氣錘里面便發出凌厲的風聲, 喇, 我很驚訝。我的速度本來就不快, 現在就更緩慢了。
 (42) ST: “네 일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두근거려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아.” (『절망』)
 TT: “懂惠, 你是我們的驕傲, 媽媽開心得連覺都睡不着。”

용례(38), (39)를 보면, 소설 텍스트와 전기 텍스트의 원문에서 ‘-아도’는 각각 동사 ‘되다’, 형용사 ‘좋다’와 함께 쓰여 허락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용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번역문에서는 ‘-아도 되다’와 ‘-아도 좋다’를 하나의 전체로 보아 모두 ‘可以’로 의역하였다.

용례 (40), (41)은 ‘-아도’의 보다 다양한 쓰임을 나타낸 예시로 모두 소설 텍스트에서 확인되었다. 용례(40)을 보면 접속어미 ‘-아도’는 ‘좋다’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앞에 부정표현 ‘-지 않다’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번역문에서는 이를 하나의 전체로 보아 ‘-지 않아도 좋다’를 ‘不用’으로 의역하였다. 용례

(41)의 경우, ‘아도’는 형용사 ‘그렇다’, 부정표현 ‘-지 않다’와 함께 쓰여 ‘그러잖아도’라는 축약형 표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비격식체 표현이 흔히 나타난다는 것은 소설 장르의 문체적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번역문에서는 축약형 표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형용사 ‘本來’로 번역하면서 중국어의 언어 특징에 맞게 재구조화하였다.

소설 텍스트에서 중국어 어휘를 활용하여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 부분을 재구조화시킨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전기 텍스트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 전체를 재구조화시킨 용례가 확인되었다. 용례(42)를 보면, 원문에서 ‘-아도’가 이끄는 선·후행절은 만족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자주 쓰는 관용 표현이다.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는 대신 중국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의역함으로써 문장의 가독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커(1992:74)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관용구나 고정표현이 의미적으로 유사하긴 하나 구성 어휘 항목이 다른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서, 관용구를 번역하는데 의미는 유사하지만 형태는 다른 관용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번역 전략 중 하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기 텍스트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역시 베이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4 생략을 활용하는 경우

접속어미 ‘-아도’가 이끄는 선·후행절 일부 내지 전체를 생략하여 번역한 용례는 소설 텍스트에서 9회, 전기 텍스트에서 4회 총 13회로 확인되었다. 관련 용례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텍스트에서 생략 양상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설 텍스트의 경우 모두 문장 전체가 생략된 것인데, 관련 용례를 보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 텍스트는 전기 텍스트에 비해 저자의 주관성을 강하게 띠는 특징과 관련이 깊다. 번역 시 원문 내용이 도착어권, 즉 중국과의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피하기 위해 문장 전체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전기 텍스트의 경우, 문장의 일부 혹은 전체를 생략한 용례가 모두 확인되었다. 관련 용례를 보면, 해당 표현을 생략한 이유는 전기 텍스트가 지닌 유형론적인 특징과 문체적 특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 텍스트는 출발어의 미학적 형식을 전달하는 것 외에

정보적 텍스트로서 정보 전달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번역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간결한 언어 표현을 더욱 선호하여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관련 예시는 아래와 같다.

(43) ST: 전에는 지도부가 다 결정해 놓고 의총을 형식적으로 거쳤다면, 지금은 의총장에서 모든 일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망』)

TT: 如果說之前的議總是指導部決定所有事之后單純形式化地開會, 現在則變成在議總會場上決定所有事。

(44) ST: 돌출 행동이나 엉뚱한 일을 만들어 경호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들은 충분히 지루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터였다. (『절망』)

TT: 也不想引起突發狀況讓隨扈們為難, 因為我明白他們的生活既乏味又疲憊。

(45) ST: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조선족들은 조선족일 뿐 절대로 중국인이 되지 않는다고. (『외딴』)

TT: ∅

용례(43)에서 ‘-아도’가 이끄는 후행절의 내용은 선행절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중국어에서 ‘-해도 과언이 아니다’와 대응되는 표현으로 ‘也不爲過’가 존재하지만 문장의 간결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한편, 용례(44)에서 ‘-아도’가 이끄는 선행절에서는 형용사 ‘그렇다’가 활용되어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선행절 내용이 생략된 채 의역되었다. 이는 한·중 양국 언어의 지시를 통한 결속구조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에서는 앞서 내용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응형 ‘그렇다’를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앞서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용례(45)의 경우, 원문에서 조선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번역문에서 이데올로기적 차이 및 도서 판매량을 고려하여 문장 전체를 생략하였다.

5. 결론

본고는 기존 접속어미 연구 중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장르별 번역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한국어 양보관계 접속어미 ‘-아도’를 중심으로 소설, 전기 텍스트에서 나타난 중국어 번역 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텍스트를 고찰한 결과, 접속어미 ‘-아도’를 번역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장르에서 사용한 전략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번역 방법을 직역과 의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설 텍스트와 전기 텍스트 모두 접속어미 ‘-아도’를 직역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번역자는 번역 활동에 있어 가능한 한 미니맥스 전략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선택은 장르와 무관한 번역에서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현적 텍스트인 소설 장르는 전기 장르보다 직역하는 경향이 더욱 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 라이스(1977)에서 주장한 바, 즉 텍스트 유형에 따라 번역 초점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한국어 접속어미를 중국어의 비명시적 논리 연결 방식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데 반해, 접속어미 ‘-아도’의 의미적 특징으로 인해 두 가지 장르는 모두 중국어 양보관계 접속표현을 사용한 채 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직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비명시적 논리 연결 구문으로 직역하는 전략은 소설 텍스트에서만 확인되었으며, 그 이유는 중국어의 언어유형론적 특징보다 소설 장르의 문체적 특징과 더욱 관련이 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접속어미 ‘-아도’를 의역하는 데 있어 소설 텍스트와 전기 텍스트에서 다른 의미관계 구문을 활용하는 전략, 문장성분을 활용하는 전략, 재구조화를 활용하는 전략, 그리고 생략을 활용하는 전략 등 4가지 유형이 모두 확인되었지만, 문체적 차이로 인해 세부적인 번역 양상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먼저 소설 텍스트는 언어 표현의 논리성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원문에 내포된 양보관계는 조건관계, 연관관계 등 보다 다양한 중국어 의미관계 구문으로 의역될 수 있었다. 그리고 소설은 구어체적 특징을 많이 지니기 때문에 ‘-아도’와 관련된 관용 표현이 더욱 많이 나타났으며, 번역문에서도 이에 따

른 다양한 중국어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저자의 주관성을 비교적 강하게 띠는 소설 장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등장했을 때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도서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문장 전체를 삭제하는 생략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전기 텍스트는 혼성된 텍스트로서 형식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 또한 중요시하기 때문에 언어가 보다 논리적이어야 하며 접속어미 ‘-아도’를 의역할 때 중국어의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거나 원문의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가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눈에 띄었다. 또한, 전기는 인물의 과거 경력을 기록하는 텍스트인 만큼 ‘돌이키다’와 같이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로 쓰인 어휘가 비교적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문체적 특징으로 인해 전기 텍스트 번역문에서는 삽입어 성분을 활용하여 번역하는 등 소설 텍스트를 번역할 때 활용되는 전략과는 구별되는 의역 전략이 활용되었음을 다수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고는 텍스트 장르에 따라 접속어미 번역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설 텍스트와 전기 텍스트로 구축된 말뭉치를 분석하였다. 비록 말뭉치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기는 하나, 접속어미 번역 연구에 있어 시각의 다양성을 더했다는 데 본고의 연구적 의의가 있다. 또한 추후 한중 통번역 현상이나 장르별 세부 번역 교육에서도 본고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접속어미, 보다 많은 장르를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논의를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참고문헌

- 금지아 (2012) 「문체론적 측면에서 본 한국 소설의 중국어 번역 연구 —은희경 장편소설 마이너리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33-57.
- 김아영 (2004) 「한-중 통번역에서 중국어 무표지 연결 절의 관계의미 연구」, 『통역과 번역』 6(1): 65-87.
- 김진아 (2000) 「중국어 관련사어 학습상의 오류 문제에 대하여」, 『통번역학연구』 4: 31-46.

- 김혜림 (2017) 『신문사설 코퍼스에 기반한 한중 번역 명시화 연구-접속기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근혜 (2007)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서울: 위즈덤하우스.
- 신경숙 (2004) 『외판방』, 파주: 문학동네.
- 이은경 (1998) 「접속어미의 통사」, 서태룡 외 (편저), 『문법 연구와 자료』, 서울: 태학사, 465-490.
- 이은경 (1999) 「구어체 텍스트에서의 한국어 연결 어미의 기능」, 『국어학』 34: 167-198.
- 이상빈 (2010) 「텍스트 유형론에 기반을 둔 학부번역수업의 운영 사례연구: K. Reiss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168-196.
- 이선 (2018) 『한국어 접속표현에 대한 중국어 등가 번역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 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 임지룡 (1982) 「상대성 접속어미 연구」, 『東洋文化研究』 9: 189-227.
- 임형재, 이선 (2017)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 —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번역을 중심으로 —」, 『한중인문학연구』 56: 251-280.
- 장현주 (2006) 『중·한 번역의 논리 연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희경 (2016) 「코퍼스 분석에 기반한 한국어 기사문 번역과 비번역의 문체 비교 연구」, 『통역과 번역』 18(1): 231-255.
- 최희경 (2016) 「한영 문학 번역 문체 연구: 코퍼스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3): 193-216.
- 崔建新·張文賢 (2002) 「不同語體下連詞使用率的統計与分析」, 『第七屆國際漢語教學討論會論文選』: 389-404.
- 郭富強 (2007) 『意合形合的漢英對比研究』, 青島: 中國海洋大學出版社.
- 藍青榮等 譯 (2013) 『絕望鍛煉了我: 朴槿惠自傳』, 江蘇: 譯林出版社.
- 劉艷春·王小帆 (2018) 「小說和傳記語體多特征對比分析」, 『江漢學術』 37(1): 120-128.

- 呂叔湘 (1999)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 邢福義 (1996) 『漢語語法學』,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 邢福義 (2001) 『漢語夏句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 邢福義 (2002) 『漢語語法三百問』, 北京: 商務印書館.
- 薛舟, 徐麗紅 譯 (2006) 『單人房』,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 姚双云 (2006) 『夏句關係標記的搭配研究與相關解釋』, 華中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ussmann, Hadumod (2006)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eech, Geoffrey N and Mick Short (1981)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London: Longman.
- Levý, Jiri (1967) ‘Translation as a Decision Process’, in Jiri Levý (ed) *To Honor Roman Jakobson: Essays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II*, The Hague: Mouton, 1171-1182.
- Munday, Jeremy (2009)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Reiss, Katharina (1989) ‘Text Types, Translation Types and Translation Assessment’ (Andrew Chesterman Trans), in Andrew Chesterman (ed.) *Readings in Translation Theory*, Finland: Oy Finn Lectura Ab, 105-115.
- Smith, Raoul N. and William J Frawley (2009) ‘Conjunctive Cohesion in Four English Genre’s’, *Text & Talk* 3(4): 347-374.

[Abstract]

**A Study of Concessional Conjunctive Expressions in texts of different Genres:
Conjunctive Endings ‘-ado’ in Korean-Chinese Translation**

Li, Xian
(Shandong University)

For high-quality translations, the key is to achieve textual equivalence between source language and target language. To achieve this, it is important to address the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languages. However, more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proposes that language characteristics based on genre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lation patterns of the Korean concessional conjunctive endings ‘-ado’, comparatively with regards to genres, in fiction and biography, specifically. In doing s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hoosing translation methods according to genres will be demonstrated.

According to the existing analysis of text corpus, literal translation using Chinese conjunctive expressions is most often found in both fictions and biographies. However, fictional texts tend to be more literal than biographies. of the free translation methods can be observed in target texts of the two genres. Nevertheless, text types and styles generat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ctions, the strategy of employing conjunctive expressions with other semantic relationships and the strategy of restructuring have more diverse patterns; whilst in biographies, the strategy of using Chinese sentence components is more flexible.

▶ Key Words: concessional conjunctive expressions, ‘-ado’, korean-chinese translation, genre, translation methods, textual equivalence

▶ 주제어: 양보관계 접속표현, ‘-아도’, 한중번역, 장르, 번역방법, 텍스트적 등가

이선(李羨)

중국 산둥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강사

lixian10599@163.com

관심분야: 한중번역, 대조언어학, CAT

논문투고일: 2020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9일